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집사·장로 안수 임직예배 드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한 목표 위하여 앞장서 헌신” 다짐



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며,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헌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일꾼이 돼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이어서 안수식 등 임직 예식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엄숙하고 거룩하게 거행되었다. 임직자와 성도들의 서약이 있는 후, 안수위원 목사님들에 의해 안수기도가 행하여지는 동안 성도들은 임직자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도록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계속해서 당회장 조 목사님이 임직을 공포하시고 축복기도를 해주신 후 임직증서와 임직패, 배지를 수여하셨다. 임직자 선서에 이어 교단 정책위원 이용주 목사님과 총회장 김병목 목사님이 축사를 통해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다.

이어서 당회장 조 목사님의 축도로 말씀충만, 성령충만, 감사와 기쁨 충만했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교회 '집사·장로 안수 임직예배'가 12월 10일(토) 안양성전에서 시종 성대하고 은혜롭게 드려져 안수집사 173명과 장로 151명, 명예 안수집사 13명과 명예 장로 9명이 각각 많은 성도와 가족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임직되었다.

신임 안수집사와 장로들은 존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착하고 충성스럽게 직임을 수행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고, 신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예배는 오전 10시 대성전에서 이석호 목사님의 사회로 교단 정책위원 진등용 목사님의 기도, 교단

총회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님의 성경봉독, 안양성전 갈릴리성가대와 GNTC 안양청년성가대의 찬양,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 임직자 순서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조용묵 목사님은 디모데전에서 1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성경적 직분관'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

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성직의 의의와 그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그 임무와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다.

조 목사님은 “아론과 훌의 인내와 성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긍정적인 언행을 본받아 헌신하는 제직,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심에 대한 감



▶ 임직서 선서

은혜와 진리소식

2022년 12월 2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묵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왕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대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제1806호



(간증)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변기주 -

저는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주일에는 교회학교에서 유치부 교사로, 주중에는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학교 부서 성가대에서 봉사하였고 스무 살 성인이 되어서는 유치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다가 군에 들어가 복무하던 중에도 휴가나 외출 시에는 꼭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유치부 어린이들을 돌보며 봉사하였습니다. 중요한 경찰공무원 임용시험을 앞두고도 교회에서의 봉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시험에 합격하고 바라던 경찰관의 꿈을 이룬 후, 저는 어느 때부터 교회 봉사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교회생활에 나태해졌습니다. 봉사를 잠시 쉬기로 하였습니

다. 저는 첫 번째 경찰관 임용시험에서 떨어지고 눈물까지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

다. 그리고 다시 치른 두 번째 시험 당일에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마음도 주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

다. 그러더니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이따가 저녁에 출근해야 한다' 등의 핑계로 아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

다. 그러자 제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

다. 제 귀에 교회를 비판하고 복음을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불신하는 자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회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와 교회의 안명이 위태로운 현실에 눈을 감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를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거북하고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교회와 더 멀어졌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에게 때로 동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도 하였습니

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저의 죄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반복하였습니다. 교만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한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의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하였을 때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본문으로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신 신년메시지에 큰 은혜와 충만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진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였어도, 그래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엄청난 희생으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만 보였는데, 그래도 그런 저를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기도를 드리며 새해에는 다시 열심히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기로 주님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제가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계속 해서 훼방하였습니다. 저는 그 해 12월이 되어서야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켰습니

다. 2018년 12월, 전에 교사로 어린이들을 섬겼던 유치부로 돌아왔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다시 봉사하러니 많이 부끄럽고 어색하였지만 예배에 참석하여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무되고 또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다시 봉사하러니 많이 부끄럽고 어색하였지만 예배에 참석하여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무되고 또 선생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왕로 193 T.031-443-3731 ~ 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대리로 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 ~ 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기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 ~ 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 (하안동)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 ~ 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 ~ 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동동) T.031-906-3731
- 시흥 : 시흥시 서촌상기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 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 ~ 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한촌길27번길 9-8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 (광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해토로48 (문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남양동)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대명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 ~ 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43-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 찬송: 찬송가 112장(새찬송가 112장),
은혜와진리찬양 186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크리스마스)을 12월 25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의 정확한 연월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서력기원 연도보다 대략 2년에서 5년 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력기원 연도를 사용하기 전에는 각 나라마다 대체로 그 나라를 다스린 왕의 등극을 기점으로 연호(年號)를 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대계산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연월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 기록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 주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는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온 사람들의 이름과 자식을 낳은 때 그리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는가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달리 없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히 안다면 그 날을 이상화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필한 책이 없고 한 장의 메모지조차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소유하신 집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유품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유품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선가 그것을 관람하도록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을 것이고 다 셀 수 없이 많은 관람객이 전 세계에서 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품을 이상화할 자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부질없고 미련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조치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이상한 이론을 붙여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부회(牽強附會)일 뿐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조리에 닿도록 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신 연월일은 확실하지 않을지라도 그 무렵에 탄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신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교회가 한 날을 정하여 성탄절로 기념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고 귀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 관하여 연도를 기록할 때 비시(B.C.)와 에이디(A.D.)로 표기합니다. B.C.(Before Christ)는 ‘그리스도 이전’을 의미하고, A.D.(Anno Domini)는 ‘주님의 해’를 의미합니다. 인류역사의 연대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셈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도 표기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수도자가 만든 달력에서 유래합니다. 그는 그때 당시의 연도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525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연도 표기가 교회를 통해 보급되어 11세기경에는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사용하였고 14세기에는 스페인이, 16세기에는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문화권에 따른 별도의 달력이 있습니다. 히브리력, 이슬람력, 음력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나 문화에 관련된 중요 사건을 근거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런 달력은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절기 행사나 의식용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기점을 삼아 역사를 셈하는 ‘단기 檀紀’를 ‘서기 西紀’와 병용 연호로 한다는 법률이 1948년 9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12월 2일 대한민국의 공용 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법률 개정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서기(西紀)가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적 의미를 가진 ‘주전(B.C.), 주후(A.D.)’라는 표기를 쓰지 말고 ‘공동시대(CE), 공동시대 이전(BCE)’로 대체 표기하자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지라도 서력기원에 기점을 둔 연대표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부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를 폐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힌다고 그 사람의 정체가 바뀌어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 없음과 같습니다. 연대 표기는 역사의 기술(記述)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모든 사람은 운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연월일시를 셈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나 영명이나의 분수령입니다. 일생의 삶의 의미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하에 달

려 있습니다.

만물과 인류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되기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는 만유와 인류 역사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없고 온전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자연과학의 제 분야에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관찰, 실험, 분석하는 과학자들이 그 모든 것의 존재와 법칙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가 가진 지식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시편기자는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시 19:1~4) 하였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 떼의 군무(群舞)나 바닷속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가 일시에 이리 저리 방향을 바꾸는 정교하고 기묘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날 때엽록소 분자에서 분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간은 약 350펨토초(2.85조 분의 1초)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식물에 빛을 받아 에너지로 바꾼 뒤 저장합니다.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계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뺄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인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또한 그러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천 번을 통독하여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야기인 것을 알지 못하면 헛되이 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하였습니다. 크게 돌로 분류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오실 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여쭙어 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설명을 조금 부가하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복음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약간 더 부연 설명하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림(初臨)이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음을 말합니다. 재림(再臨)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복음에 견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속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셨으며 성경에 예언된 대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인생들의 추악한 죄를 다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실로 몸서리나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 12:27) 하였습니다.

겻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하시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피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심히 고민하신 까닭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치욕과 고통을 다 체휼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더 큰 고민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 인간의 추악한 죄를 다 담당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십 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후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보는 중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구속사역이 성공적이고 완전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본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3)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니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죄의 대속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속사역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성취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림의 복음은 재림의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①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에 관하여 온갖 반론이 있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18) 하였습니다.

② 종말의 7년 대환난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기를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종말의 환난과 시험을 능히 피하게 됩니다. 들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총을 입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36)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③ 사탄을 무저갱에 가둘 것이며 천년 동안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가운데 성도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④ 천 년이 지난 후 사탄이 잠시 놓여나게 되면 미혹 받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로써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탄과 그 사자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⑤ 옛 세상은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가 풀어져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속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부활하고 변화된 몸을 입은 성도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하기를 바랍니다.